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상감



범여권의 대선 예비후보가 넘쳐나고 있다. 여권이 사분오열되면서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던지 저마다 '우후죽순' 격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정치인들의 출마 선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곧 흐르는 것은 그뿐만 아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 '빅3' 중 한 명이었던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반(反)한나라당 진영 대선 예비후보 가운데 지지를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국민중심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복당한 이인재 의원도 민주당원을 상대로 한 당내 지지를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손 전 지사와 이인재 의원은 깊은 광역 정치인이다. YS(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정치를 시작했고 YS가 이끌던 당시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 활약한 공통점이 있다. 또 국회의원을 거쳐 YS정부에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뒤 경기도지사를 지낸 점도 비슷하다.

손 전 지사의 범여권 합류 선언으로 공

통점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원래 몸담고 있던 당의 대권후보 경쟁에 나섰다가 어려움에 처하자 탈당해 대선에 출마하거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된 것이다.

대선 후보 '과거' 철저히 검증해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의원의 행보다. 지난 1987년 통일민주당 중앙상무위원회로 입문한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노동부장관, 경기도지사 등을 지냈다. 1997년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지만 이회창 후보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3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국민신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러한 이 의원의 행보는 '이인재 학습 효과', '이인재 선거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또 국민회의와 국민신당 등

9차례의 찾은 당적 변경으로 '철새 정치인'의 상징처럼 됐다.

손 전 지사의 행적도 도미에 올랐다. 손 전 지사는 민자당 대변인 시절 '5·18 진상 규명과 평화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학생 등 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2003년 6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핵 문제를 평화적으로만 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다.

한 종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하지만, 결단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정치인들도 국민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은 소신을 바꾸거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들을 냉엄하게 심판해왔다. 철새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을 달리 해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경선후보들은 지금 흑록한 당내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사활을 건 검증공방을 벌이고 있다. 과거 행적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공방이 격화되면서 고 공비행을 하던 이 전 시장의 지지도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반면 범여권 주자들은 '노무현 프레임'에 간접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지를 10%대를 넘는 주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이 범여권의 한계다. 대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난무하는 예비후보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선택과 과거 행적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책임의식이 없으면 국민이 나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전과 정책이 실종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

〈변호사〉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의 분기점이 될만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정회일



필자는 약 6년간의 검사 생활을 접고 지난해 12월 판사로 임용되었다.

검사에서 바로 판사가 되었다고 말하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중에도 어떤 경로를 통한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필자도 2005년 여름 어느 날 검사실에서 법률신문에 난 공고를 보고 처음 길을 알았으니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것이 당연할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필자는 검사로서 판

사가 된 것이 아니라 변호사 등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법관 이외에 변호사 등 다른 직역에서 일하던 법조경력 있는 사람의 자격으로 시험과 심사를 거쳐

검사에서 판사로

법관이 된 것이다.

4개월 동안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의 자기소개서와 법조인이 되어 작성하였던 서류에 대한 심사를 받았고, 사례를 검토하고 그 해결능력을 묻는 구술면접, 예시에 작성, 적성검사, 심층면접 등을 거쳐 3대 1이 넘는 경쟁자 중 선발된 17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6년의 공직생활을 걸고 도전한 것이므로 나름대로는 피를 맡리는 과정이었다.

법조경력 있는 법관을 선발하게 된 계기는 국민이 사법연수원을 갖 마치고 처음부터 법관이 된 사람의 판단보다는 좀 더 인생을 많이 경험한 법관에게 판단 반기기 원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법관을 선발하는 것을 법조일 원회라고 하고, 영미법계 국가들이 이렇게 법관을 선발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영화에 나오는 법정에는 나아지긋한 사람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법조경력이 적어도

아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다른 직역보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법원에서 일하는 가장 좋은 점인 것 같다.

인사판단이 비교적 예측 가능하므로 인사 때마다 일회일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역시 큰 장점이다.

보수는 같은 경력의 판사와 검사가 똑 같은 보수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으나 전혀 변화가 없다. 늦게까지 균할 일이 많은 것은 판사나 검사나 같은 것 같다.

필자는 먼 길을 돌아서 소원하는 법관이 되었기에 자부심도 남다르다.

연수원을 갖 마친 재기발랄한 법관 지원자가 많을 때도 필자와 같은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탄생한 취지가 서류와 법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해야 재판하라는 것임을 잘 알기에 기대에 부응하는 법관이 되고자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광주지법 판사〉

기고

김란기



광주광역시 신창동의 철기시대 문화 유적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주변의 도로공사는 유적지에 대한 보호조치도 없이 진행되고 있고 울타리 없는 유적지에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다. 이 장마철을 어떻게 넘길지 걱정이 크다.

인문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시정되어야 할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 있게 문제해결을 하려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

신창동 유적은 세계적으로 특별한 유적이다. 여기에는 유아용 공동묘지, 토기묘지, 옛 밭, 소택지, 집자리 등 복

란 거창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문화유산에는 관심이 없다. 알맹이 없는 허접한 문화사업을 벌이고 있음에 다른 아니다. 예산의 대부분을 새 건물 세우기나 이벤트성 행사에 쏟아 붙고 있다.

문화재청이 이벤트성 문화재행정에 끌려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지역의 문화재가 이같이 팽개쳐져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벤트성이 크지 않는 문화유산은 문화재청의 친밥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문화수도, 고대 문화유적은 찬밥인가

합동경취락의 유구가 밟굴된 곳이다. 또 각종의 농기구, 목공구, 생활용구, 직조용구, 악기, 의기류 등 다종다양하여 우리나라 고대 민속자료 뿐 아니라 세계적인 선사유적으로 꽂아된다.

이 같은 다양하고 특별한 유물들에 대해 광주시는 예산타령과 인력부족만을 끌어내밀고 있다. 유적지의 중심을 지나는 고속도로를 한없이 방치하고 있으며 유적지 안의 대형광고탑과 위성전화 송신탑, 그리고 그 부속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채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유적지임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은 쉽게 볼 수 없다. 밖에서는 볼 수 없는 안쪽에 세워두고 있기 때문이다.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판 역시 시민들이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없다. 유적지 안에 들어가서 살펴봐야 겨우 알 수 있게 세워놓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신창동 문화유적의 핵심임을 명시하고 시민들의 교육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여 역사문화유적이라는 광주광역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코리아헤리티지 집행위원장〉

이에 광주광역시와 문화재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광주광역시 신창동유적지 훼손을 더 이상 방지해서는 안된다. 유적과 그 경관을 파괴하는 시설물을 당장 철거하여야 한다. 아울러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문화재청에서도 중장 중심의, 이벤트성 행정태도를 버리고 시급한 지역유산 보존의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신창동 유적지가 고대사에 대한 연구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나아가 광주시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의 중심에 신창동 문화유적이 핵심임을 명시하고 시민들의 교육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여 역사문화유적이라는 광주광역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코리아헤리티지 집행위원장〉

청소년캠프 난립 사고 우려...법규 정비 등 대책 마련을

편의점 강도 활개...새벽 시간땐 2명이 근무를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편의점에 또다시 강도가 침입해 종업원에게 칼을 들이대고는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더군다나 이 강도는 평소에 그 편의점에 자주 들려서 술과 담배를 사가곤 했다고 한다.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가 최근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는데 그 이유가 치안이 불안해서다.

그 친구는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밤 10시 정도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보통 새벽 타임 때가 아주 불안하다고 한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에서 발생하는 편의점 강도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다. 계속해서 편의점 노리며 강도가 일어나는데 경찰이나 편의점 주인들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 같다.

편의점 업주들은 새벽 시간 직원 혼자 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정도까지 2명을 근무시킬 여력이 되지 않으면 아래 편의점 업주를 못하도록 조례 등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은채·광주시 남구 월성동

시설

노조 '폭력·강압 파업' 더 이상 안 통한다

'파업'에 대한 비판여론은 의식해 파업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에 풀이된다. 한마디로 명분은 물론 실리도 없는 파업에 조합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기아차 노조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빠아픈 성과 조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조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노조가 상급단체나 일부 지도자의 강압에 의해 거리에 나선다는 것은 그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또한 법이 허용하지 않은 파업은 더 이상 안 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조원들이 "이제는 정치파업은 쉽다"며 파업을 거부, 집행부가 사퇴한 현 대상호증공업 노조를 탄식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아차 노조는 시스템 개선과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의 감시기능 강화 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일은 없고 끊기만 하는 파업을 밟 먹고 되풀이해서는 노조의 미래가 없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경제도약 계기로

광주상의가 분석한 세계박람회의 경제적 효과는 여수 유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광주상의는 2012세계박람회를 여수에서 개최하면 생산유발효과만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까지 포함하면 그 효과는 엄청나다.

광주상의는 정부가 세계박람회를 위해 기반시설공사비와 부지매입비 등 총 1조3천547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3조9천852억원으로 추산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1조9천860억원, 경남 1조58억원, 광주 745억원, 제주 196억원 등이다. 개최 여수가 전체의 66.5%를 차지하지만 경남, 광주, 제주 등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임금유발효과가 4천640억원으로 추산됐고 고용창출 및 취업유발효과는 4만여명에 달했다. 관광객은 내국인 752만명과 외국인 42만명 등 795만명에, 이들의 소비지출액은 총 5천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끼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개발 50년을 맞는 2012년은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갖고 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꼽히는 세계박람회까지 유치하면 국민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역량의 결집과 국민의 성원이다. 여수는 세계박람회 사무국의 현지 실사와 프리젠테이션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로코나 폴란드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박세일 서울대교수는 저서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에서 '도덕과 정치는 기본을 달리하는 영역이다. 정치가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사적 평가가 아니라 국가운영 능력과 그 성과에 대한 공적 인 평가여야 한다'고 기술했다.

현실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던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윤리적 공상과 엄연한 현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도덕성보다 정치인들의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세계는 그렇지 않다. 도덕성이 정치인 평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

도덕성 검증에 걸려 좌절한 표적인 경우가 에드워드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이다.

1969년 7월 18일 케네디가 물던 지동차가 매사추세츠주 채퍼wickdip의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물속으로 추락했다. 케네디는 살아났지만 여비서인 메리 조코프코니는 차속에서 숨졌다.

문제는 사고 이후 케네디의 처신, 혼자만 살아난 데다 사건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경찰에 늑장 신고한 것이다